

2019년 11월 27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트럼프 발언 후 제한적인 상승 전환 트럼프 “매우 중요한 거래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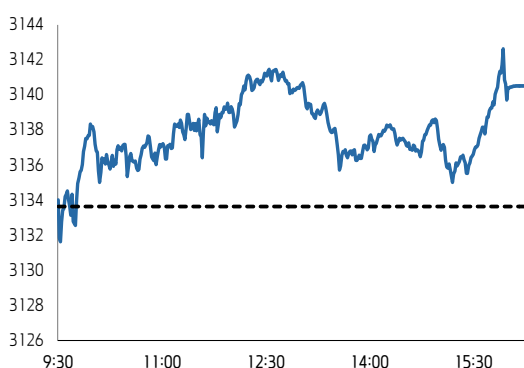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①낙관적인 무역협상 관련 보도 ②차익매물 욕구 강화

미 증시는 부진한 경제지표와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하기도 했음. 그러나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는 보도들이 이어졌고, 미 고위 관리들의 추수감사절 이후 중국 방문 가능성도 부각되자 상승 전환에 성공. 최근 상승을 이어갔던 금융과 에너지, 제약이 부진한 반면 소비재 업종이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다우 +0.20%, 나스닥 +0.18%, S&P500 +0.22%, 러셀 2000 +0.14%)

낙관적인 미-중 무역협상 관련 보도들이 나왔으나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정도의 영향만 준 점이 오늘 미 증시의 특징. 미-중 고위급 관료들은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음. 이에 기반해 트럼프는 “우리는 매우 중요한 거래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 라고 언급하며 미 증시 상승을 이끔. 콘웨이 백악관 고문도 “미국과 중국의 1 단계 거래합의는 정말로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주장. 척 그래스리 미 상원 재무위원회 의장도 “중국과의 거래는 연말 전에 이뤄질 수 있다” 라고 언급 하는 등 오늘 많은 인사들이 낙관적인 무역협상 기대를 높이는 발언을 함

한편, 류허 부총리가 2 주전 미국 고위급 회담 당사자들과 추수감사절 이전 중국에서 무역협상을 하자고 요청 했었음. 그와 관련 미국에서는 응답이 없었으나, 이날 미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추수감사절 이후 중국에 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옴. 실제 추수감사절 이후 미-중 대면협상이 진행된다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12 월 15 일 추가관세 연기 가능성이 높아 긍정적.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제한. 이미 무역낙관론에 기반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선반영 되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 여기에 소비자신뢰지수 (126.1→125.5), 신규주택 판매(mom -0.7%) 등 경제지표가 부진하고 S&P500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여전히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상승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점이 부담. 그러다 보니 하락요인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오늘도 일부 악재성 재료가 유입된 금융, 에너지, 제약 등은 부진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상승률(%)	Close	D-1	지수	상승률(%)	Close	D-1
KOSPI	-0.10	2,121.35	홍콩항셍	26,913.92	-0.29		
KOSDAQ	+0.65	651.59	영국	7,403.14	+0.09		
DOW	+0.20	28,121.68	독일	13,236.42	-0.08		
NASDAQ	+0.18	8,647.93	프랑스	5,929.62	+0.08		
S&P 500	+0.22	3,140.52	스페인	9,324.80	+0.05		
상하이종합	+0.03	2,907.06	그리스	891.86	-0.71		
일본	+0.35	23,373.32	이탈리아	23,546.58	+0.3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베스트바이 급등

전자상거래 업체인 베스트바이(+9.80%) 분기실적 개선 및 2020년 이익 가이드스 상향 조정 소식에 힘입어 상승했다. 특히 애플의 5G폰이 내년 가을에 발표되는데 이를 통해 더욱 강력한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디스 스포츠(+18.72%)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과 가이드스 상향 조정 데 힘입어 급등 했다. 동일점포 매출도 6% 증가했다는 발표도 영향을 줬다. 디즈니(+1.26%)는 컨셉넷지가 '독특한' 경쟁 우위를 언급하며 커버리지를 시작하자 상승 했다.

휴렛팩키드 엔터프라이즈(-8.54%)는 무역분쟁이 매출에 악영향을 줬다는 소식을 발표하자 급락했다. 할인 소매업체인 달러트리(-15.24%)는 대 중국 관세 부과등을 이유로 가이드스를 하향 조정한 여파로 급락했다. 실제 여타 소매업체들에 비해 달러트리는 중국산 제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이 관세 영향을 크게 받는 경향을 이어갔다. 미 연방검찰은 제약회사가 의도적으로 오피오이드를 포함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하자 맥케슨(-4.87%), 아메리소스(-3.08%), 카디날헬스(-3.80%), 윌그린 부츠(-1.72%) 등 약국체인점들이 급락했다. 더불어 CBD가 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FDA의 경고도 이를 판매하는 CVS헬스(-2.14%)를 비롯한 윌그린 등의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50%	대형 가치주 ETF(IVE)	-0.06%
에너지섹터 ETF(OIH)	-2.75%	중형 가치주 ETF(IWS)	+0.17%
소매업체 ETF(XRT)	+0.61%	소형 가치주 ETF(IWN)	-0.22%
금융섹터 ETF(XLF)	-0.10%	대형 성장주 ETF(VUG)	+0.35%
기술섹터 ETF(XLK)	+0.09%	중형 성장주 ETF(IWP)	+0.52%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14%	소형 성장주 ETF(IWO)	+0.34%
인터넷업체 ETF(FDN)	+0.34%	배당주 ETF(DVY)	-0.10%
리츠업체 ETF(XLRE)	+1.39%	신흥국 고배당 ETF(DEM)	-0.43%
주택건설업체 ETF(XHB)	+1.51%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62%
바이오섹터 ETF(IBB)	+0.19%	미국 국채 ETF(IEF)	+0.19%
헬스케어 ETF(XLV)	-0.08%	하이일드 ETF(JNK)	+0.16%
곡물 ETF(DBA)	-0.31%	물가연동채 ETF(TIP)	-0.21%
반도체 ETF(SMH)	-0.32%	Long/short ETF(BTAL)	+0.3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34.42	-1.01%	+1.46%	-0.81%
소재	376.20	+0.52%	-0.02%	+2.00%
산업재	693.70	+0.30%	+0.65%	+4.05%
경기소비재	960.24	+0.81%	+1.54%	+1.22%
필수소비재	634.26	+0.82%	+0.50%	+1.37%
헬스케어	1,147.21	-0.07%	+1.54%	+5.39%
금융	498.15	-0.12%	+0.69%	+3.93%
IT	1,539.37	+0.07%	+0.15%	+5.43%
커뮤니케이션	177.77	+0.36%	+0.06%	+3.94%
유틸리티	318.51	+0.38%	+0.29%	-0.95%
부동산	238.72	+1.44%	-0.43%	-1.6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당분간 기간 조정 이어질 듯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7% 상승 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 는 0.30%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662 계약 순매도한 가운데 0.25pt 하락한 282.95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73.5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낙관적인 미-중 무역협상에 기대 상승을 확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MSCI EM 지수 리밸런싱일을 맞아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8,573 억원)로 결국 소폭 하락 마감 했다. 오늘부터는 외국인의 수급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한편, 미 증시는 트럼프를 비롯해 많은 관계자들이 무역협상 막바지 발언을 하는 등 낙관적인 무역협상에 기대 상승 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상승이 제한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시장에 일부 반영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을 비롯해 글로벌 증시는 8 월 중순 미 무역대표부가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시행을 12 월 15 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이후 10% 나 상승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무역협상을 둘러싼 부정적인 요인에는 민감하지만 긍정적인 요인에는 반응이 약하다. 이러한 시장 변화를 감안 미 증시 상승 요인은 전일 일부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 한국증시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실적 개선세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kospi200 기준 12m fwd 영업이익 8 월 중순 150 조원, 현재 157 조원)라는 점을 감안 차익매물 매물 출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2 월 15 일 관세 연기 발표 이전까지는 이러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기간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전월 대비 둔화

11 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126.1) 보다 부진한 125.5 로 발표되었다. 현재상태지수(173.5→166.9)가 부진한 가운데 기대지수(94.5→97.9)는 개선되었다. 나이별로 보면 35 세 미만(129.4→115.3), 35~54 세(130.7→124.9) 모두 전월 보다 하향 되었으나 55 세 이상(120.8→131.3)은 개선되었다. 세부적으로 봐도 소득 증가는 21.8%로 생각했으나 이는 7 월(24.9%)를 하회, 사업여건 개선이나 일자리 개선도 대부분 꺾였다. 이를 감안 향후 소비 및 고용 부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 월 미국 신규주택 판매는 전월(73.8 만건)을 하회한 73.3 만 건으로 발표돼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평균가격은 전월(31 만 200 달러) 보다 상승한 31 만 6,700 달러를 기록했다.

11 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가 전월(8), 예상(6)보다 부진한 -1 로 발표되었다. 신규수주(7→-3), 고용지수(13→5) 등 대부분의 세부항목도 부진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역외 위안화 환율 달러 대비 강세

국제유가는 미-중 1 단계 무역합의가 근접했다는 트럼프 발언에 힘입어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OPEC 정례회담을 앞두고 산유국들이 내년 3 월 감산합의 종료 기간을 9 월로 연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소비자신뢰지수가 부진하는 등 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되자 상승은 제한되었다.

달러화는 부진한 경제지표 결과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무역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발표가 나오자 달러화는 혼조세로 전환 했다. 엔화는 무역협상 기대가 높아지자 달러 대비 약세로, 파운드화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스코틀랜드를 방문한 가운데 추가적인 분리독립 투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자 정치불확실성이 높아지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0.25%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부진한 경제지표 여파로 하락 했다. 특히 소비자 신뢰지수가 세부항목들도 부진해 향후 소비 둔화 우려를 높인 점이 영향을 줬다. 한편, 국채 수요 증가 소식이 전해진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5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37 배)을 상회한 2.50 배를, 간접응찰률도 12 개월 평균(58.7%) 보다 상승한 64.8%를 기록하는 등 국채수요가 증가했다.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발언이 있었는데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언급해 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은 달러 약세 및 경제지표 부진 영향으로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낙관적인 무역협상에 기대 상승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45% 철근도 0.91%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8.41	+0.69	+5.53	Dollar Index	98.233	-0.09	+0.39
브렌트유	64.27	+0.97	+5.52	EUR/USD	1.1025	+0.10	-0.48
금	1,467.40	+0.25	-0.93	USD/JPY	109.04	+0.10	+0.46
은	17,188	+0.93	-0.45	GBP/USD	1.2867	-0.26	-0.46
알루미늄	1,753.00	+0.98	+1.27	USD/CHF	0.9971	+0.06	+0.67
전기동	5,924.00	+0.95	+0.83	AUD/USD	0.6788	+0.13	-0.59
아연	2,299.00	+0.79	-1.92	USD/CAD	1.3270	-0.22	+0.02
옥수수	378.25	-0.66	-0.66	USD/BRL	4.2386	+0.27	+0.93
밀	531.00	-0.38	+3.06	USD/CNH	7.0123	-0.27	-0.22
대두	884.25	-0.92	-2.99	USD/KRW	1176.70	+0.06	+0.78
커피	116.85	-1.72	+10.08	USD/KRW NDF1M	1173.00	-0.03	+0.45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736	-1.88	-4.63	스페인	0.386	-2.30	-4.00
한국	1.700	-2.50	-2.50	포르투갈	0.369	-0.60	+0.10
일본	-0.088	-1.10	-0.80	그리스	1.364	+1.10	-5.60
독일	-0.372	-2.30	-3.30	이탈리아	1.167	+0.60	-7.60